

청년창업농 추가 모집에 1838명 몰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모집에 1800여 명이 몰려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가 모집 신청자 10명중 3명은 1차 선발 탈락자들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400명 추가 모집에 1838명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원하는 것이다.

경쟁률 4.6대 1...31.7%가 1차 선발 탈락자 몰려

귀농·비농업계 출신·부모 영농기반 신청자 다

정부는 당초 올해 12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168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사업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2.8배 많은 3326명이 몰리자 정부는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9억9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는 400명을 더 뽑아 5

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선발 과정에서 서면평가 통과 요건(60점)을 충족했는데도 탈락한 청년농업인은 독립경영예정자 44명을 포함해 총 921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신청자 1838명을 대상으로 서면·면접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영농정착금은 다음달 말부터 지급한다.

신청 결과를 보면 전체 신청자의 31.7%인 583명이 지난 4월 선발 당시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1471명·80.0%)이 여성(367명)의 4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39세(1204명·65.5%) 신청자가 18~29세(634명·34.5%)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2명(18.6%)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과 전북이 276명(15.0%)이 뒤를 이었고, 경남 234명(12.7%), 충남 179명(9.7%), 경기 170명(9.2%), 충북 131명(7.1%), 강원 89명(4.8%), 제주 69명(3.8%) 순이었다.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72명(3.9%)이 신청했다.

영농 경력별로는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독립경영 예정자(738명)가 전체 신청자의 40%였다. 독립경영 1년차는 652명(35.5%), 2년차는 291명(15.8%), 3년차는 159명(8.7%)으로 집계됐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육성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을 한 본인명의 영농 수행자를 말한다.

또 도시에서 귀농했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1381명(75.1%)으로 재촌 청년(457명)보다 3배 많았다.

농업계 학력이 없는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는 1435명(78.1%)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403명)보다 3.6배 많았다.

다만 신청자들 중 농촌에 부모의 영농 기반이 있는 경우(1189명·64.7%)가 많았다.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649명(35.3%)이나 됐다.

이밖에 부부 공동영농 창업자에 정자 포함)는 400명(21.8%)이었고, 청년들이 농업법인을 공동 창업하겠다고 지원한 경우도 50명(2.7%)이었다.



“과일이야? 신발이야?”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지하 1층 ‘락피쉬’ 매장에서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는 ‘후르츠 젤리 샌들’을 선보이고 있다. ‘후르츠 젤리 샌들’은 워터프루프가 가능한 PVC 소재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오염이 묻어도 금방 닦아 낼 수 있어 장마철과 휴가철 모두 유용하다. 가격은 성인용 4만 2000원, 아동용 3만 9000원이다.

금호타이어, 더블스타서 6463억원 자본유치

“글로벌 10위 성장 로드맵 실현”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 유치를 완료했다.

지난 4월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중국의 더블스타는 6일 제3차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금 6463억원을 금호타이어에 납입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1억 2927만 신주를 인수해 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이전까지 42%를 보유했던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23.1%로 내려갔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더블스타 차이운선 회장과 장권화 CFO를 기타 비상부이사(비상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블스타가 중국 지리자동차와 볼보의 사례와 같은 독립경영을 보장한 만큼 금호타이어는 현 체제 그대로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지난 해부터 진행해왔던 매각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본격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와 함께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10위권 진입’이라는 성장 로드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스

뉴스스

농로 Lotto 제 814회차 당첨결과 (2018년 7월 7일 추첨)

2				21				28				38				42				45				+ 30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6	3,067,192,063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2	58,954,46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1,833	1,673,31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3,837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585,777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역망일임



SUV, 왜 글로벌 대세가 됐나

협로주행 탁월...기술개발로 승차감 연비↑

경기도 일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차를 바꾸며 현대자동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를 선택했다. 운전석이 높아 시야가 차량 주변상황을 좀 더 쉽게 보고 파악할 수 있는데다 소형이라 주차도 용이한 것은 물론 디자인, 승차감도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다 주변에서도 자신을 좀 더 젊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서울에 사는 30대 사업가 B씨 역시 몇 개월 전 독일 수입차 브랜드의 대형 SUV를 구매했다. 이 브랜드의 세단은 '사장님차'로 느껴져 왠지 꺼려했지만 SUV는 세단같은 올드함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가끔 교외에서 캠핑이나 서핑 등을 할 때도 활용하기 좋고, 아이가 생기면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B씨가 대형 SUV를 선택한 이유다.

SUV가 대세다. 국내에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SUV가 인기를 얻으면서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브랜드들도 앞다퉈 SUV신차를 내놓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분위기다.

SUV의 인기는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다. 유가가 하락하며 수년 전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SUV의 인기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연비와 승차감이 좋아지고, 디자인 역시 수려해지면서 세계의 소비자들도 세단이 아닌 SUV를 선택하고 있다.

SUV의 인기는 미국시장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부진, 가계소득 감소, 유가 상승으로 고연비 세단의 비중이 컸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세단은 하락세를, SUV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자유가 기초와 지속적 경기회복세가 SUV인기의 원인이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세단판매량은 2008년 67만 9000대에서 2015년 75만4000대로 2.1% 감소한 반면 SUV와 CUV는 2008년 357만5000대에서 2015년 645만6000대로 15.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시장의 SUV 판매비중은 2015년 56%, 2016년 60%로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시장의 주력차종 역시 SUV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시장의 SUV 판매비중은 2010년 1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판매의 40%인 1000만대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SUV 열풍이 불면서 왜건이나 해치백 위주였던 유럽 시장에서도 올해 SUV 점유율이 30% 이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SUV 판매비중이 2012년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후 2016년 30%를 돌파, 2017년에는 35%까지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SUV의 인기 이유를 세단에 비해 넓은 실내공간과 적재공간, 기술발전으로 인한 편의·안전 강화, 실용성 등으로 꼽는다.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소형 SUV,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넉넉한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중대형 SUV를 찾는 경향이 굳어지며 앞으로도 SUV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레저에 특화된 이미지에 세단 못지 않은 기술력까지 탑재되며 SUV의 인기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됐다”며 “SUV의 인기는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